

韓中同形完全異意語的異質化研究

— 以語源的考察為中心 —

郭秋雯*

中文摘要

本研究以通時 (diachronic) 的角度，全盤地從語源探討韓中兩國同形完全異意語差異原因，結果在古文獻中發現，韓國的漢字語並非自行進行語意轉變，多半是借用了漢語之後，保留了當時的語意並沿用至今、或者從一開始就與中文出自不同的出處；中國的語彙則是因時空背景的變遷，加上漢字一字多義之特性，語意不斷改變，因此造成了兩國用語的差異。當然不可否認的，有些韓國漢字語也因時代變遷、文化差異、語言習慣等原因而引起語意變化，但從本稿所蒐集的語料中發現，因這些原因而導致與中文語意有所出入的例子幾乎沒有，這也證實過去以來「韓國自行變更了中國漢字用法」的觀念是需要修正的。不過由於語料考證工作的困難，本稿收錄的使用頻度 20 以上的語彙 26 個中，仍有少數幾個尚無法確認其語源，這也是本稿日後要繼續深研的課題。

關鍵詞：漢字語、同形異義、通時、語源、異質化

*國立政治大學韓文系助理教授
98.09.09 到稿 98.11.16 通過刊登

A Study on the Dissimilation of Korean-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characters. Bilingual Research

Kuo, Chiu-Wen*

Abstract

Kuo Chiu-wen. 2009.6.30., . This research analyzes the causes for the difference between Chinese characters used in China and the corresponding Chinese characters used in Korea through etymology taken from a diachronic angle.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Korea did not shift their meaning automatically, but rather, they preserved the original meaning applied in China up till now.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change in time and backgrounds, together with the Chinese language characteristic of having one or more meanings in the same character, their meanings have changed over time, which has led to the difference in meanings of Chinese charact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day. Nevertheless, it should not be denied the fact that the change in time and cultural differences have also led to a change i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used in Korea, but this article has overthrown the historically stereotypical opinion that Korea has changed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However, because of the difficulty encountere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the etymology of some of the 26 Chinese vocabularies with a frequency usage of over 20 has not been found yet. This makes also up a challenge for this article to continue a much more in-depth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s : 한자어(**Chinese characters**), 동형이의(**homonyms**), 통시적(**diachronic**), 어원(**etymology**), 이질화(**Dissimil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韓·中 同形 完全 異意語의 異質化 研究

-語源的 考察를 중심으로-

Kuo, Chiu-Wen

1. 머리말

同形完全異意 한자어란 의미가 서로 겹친 부분 없이 완전히 다른 한자어를 말한다. 한·중 동형완전이의어는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과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한자어를 쓸 때 주의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한자어는 형태나 의미가 중국어에서 쓰이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 한자어는 처음 만들어 졌을 때에는 고유의 특정한 의미를 가지면서 사용되어 진다. 처음 만들어 졌을 때의 특정한 본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문화의 변화 등의 이유로 의미가 변화된 것이 많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어와 한국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양국 어휘의 이질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양국 어휘의 이질화는 사회 문화 등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등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언어 내부적 요인 때문에 이질화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 언어적 원인에 의한 의미의 차이는 단어의 생략에 의한 차이, 한자의 상이한 해석에 따른 차이, 의미의 모호성에 의한 차이, 단어 사용의 습관화에 따른 차이 등을 들 수 있다(정은혜, 1998:92~93).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 사용상의 오류와 이해의 오해를 범하기 쉽다.

예를 들어 ‘세수(洗手)’는 글자 자체로 ‘손을 씻다’의 뜻으로 중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손이나 얼굴을 씻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기존 논문들은 모두 다 ‘洗手’는 중국어에서 本義대로 쓰이고 한국어에서 의미확대되거나 의미가 전이되면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해 왔다. 즉, 중국어에서는 의미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한국어에서 의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양국 한자어의 의미가 이질화되었다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문헌 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옛

중국에서 ‘洗手’와 ‘洗面’은 늘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자 표현에서도 ‘洗手面’으로 손과 얼굴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의미상으로 ‘손과 얼굴을 씻다’와 ‘얼굴을 강조하여 얼굴만 씻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손과 얼굴을 씻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洗手’는 의미확대가 아니라 본의를 간직해 온 결과로 보인다.

『新校本北史/列傳/卷九十四』: 俗以溺洗手面, 於諸夷最爲不潔。

(풍습은 오줌으로 얼굴과 손을 씻는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중, 제일 깨끗하지 못하다)

『新校本魏書/列傳/卷一百』: 俗以人溺洗手面·頭插虎豹尾。

(풍습은 오줌으로 얼굴과 손을 씻는다. 머리에 범이나 표범의 꼬리를 꽂는다)

『子/醫家/普濟方/身形/卷五十一』: 每夜用少許。洗手面令光滑。…常用洗手面。色白如練。

(매일밤 소량을 사용하여 손과 얼굴을 씻어 매끈하게 한다... 자주 이를 이용하여 손과 얼굴을 씻으면 색이 하얗기가 마치 흰 명주같다.)

이에 비해, 아래 예로 든 고문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洗手’는 ‘손만 씻다’는 의미로도 쓰였다. 이 자료만 보면 ‘洗手’는 한국어에서 의미변화가 생겼고 중국어에서는 본의대로 쓰인다는 주장이 옳다.

『十三經注/禮記注疏』: 盥謂洗手 漱謂漱口。

(관(盥)은 손을 씻는 것을 말하고, 수(漱)는 양치하는 것을 말한다)

『新校本北史/列傳/卷三十五』: 劭集諸州朝集使, 洗手焚香, 閉目讀之。

(모든 주(州)의 관리들을 모이게 하여, 손을 씻고 향을 사르고 눈을 감고 이를 읽는다)

과연 ‘洗手’ 같은 어휘는 한국어에서 의미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차용된 그 당시의 의미대로 쓰여 왔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어에서 의미변화를 일으켰다는 기존 주장들이 미흡한 데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처럼 기존 연구가 글자 자체의 뜻에서만 양국 한자어를 비교하여 분류하는 방법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어원에서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 한자어의 이해에 있어 오해나 올바른 사용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본고는 고문헌의 고찰을 통해 양국 동형완전어의 한자어는 그들의 어원이 다르거나 원래부터 본의를 다르게 사용해서 의미변화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출판된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 나타나는 사용빈도 20 이상의 한중 동형완전어의 어휘를 뽑아 국립국어원 및 대만 교육부 전자사전을 이용해 의미를 정리·비교하고, 마지막으로 대만 中央研究院 漢籍電子文獻에서 제공하는 고문헌을 통해서 통시적으로 어원을 찾아 양국 동형완전어의 한자어의 의미가 이질화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한중 양국 한자어의 비교 연구는 일찍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¹ 아는 바와 같이 그간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를 비교한 논문들이 대부분이 양국 어휘의 형태와 의미 차이를 나열·비교만 했을 뿐, 차이의 발생 원인과 과정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논문들 중 부분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 밝히려 한 논문들도 고의(古義) 보존 정도를 다루는 것에 그쳤을 뿐 어원의 차원에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기존 연구들 중에 程崇義(1987)와 王克全(1994)은 중국어 화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전자는 의미 이질화에 있어 주된 원인을 한국의 본의 보존과 일본 한자어의 영향에서 찾았으며, 후자는 한자어들을 一音節에서 四音節까지 음절별로 각각 분류하고 그들의 의미, 품사와 형태 등 몇 가지 면에서 비교하였다. 하지만 이 두 연구 또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논의들 중에 鄭恩惠(1998)는 양국 한자어 의미 이질화의 원인과 과정 등을 유형화하여 다각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를 해 주목된다. 그는 양국 한자어의 의미 이질화를 4가지의 유형, 즉 (1) 한국에서의 의미 변화로 인한 이질화, (2) 중국에서의 의미 변화로 인한 이질화, (3) 양국에서의 의미 변화로 인한 이질화, (4) 양국에서의 본의 자체가 다른 경우 등으로 나누면서 이질화의 원인을 언어 차용국의 보수성, 외국어의 영향,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 그리고 언어적·역사적·사회적·심리적 원인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는 언어 내부적·외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다루려 노력했는데 역시 통시적으로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이 논문에서 ‘結束’은 하나의 본의, 즉 ‘구속하다, 제약하다’를 양국에서 서로 다르게 변화시킴에 따라 현재의 의미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 완전이의어가 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結束’의 여러 의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몸단속’임을 많은 중국 고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結束’의 현대중국어 의미인 ‘終了’도 옷을 입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고대 복장의 소매 위 겨드랑이 밑에 짧은 띠가

¹ 成元慶(1977)은 한중 양국의 어휘 관계를 다섯 가지로 구별하였다. 즉, (1) 한국에서 쓰이는 한자어들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의 고전이나 경전에서 나온 것이다. (2) 한자어의 형태는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이 많다. (3) 각국의 생활양식과 습관에 따라 구성된 새로운 어휘나 표현 방법으로 인해 의미 차이를 보인다. (4) 어순이 전도되어 있는 한자 어휘가 많다. (5) 고사성어에서 의미나 형태에 차이가 난다. 그 중에서 (3)이 한중 양국어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있었는데, 짧은 띠를 하는 것을 ‘結’ 이라 하고 허리띠를 하는 것을 ‘束’ 이라 하였다. 중고시기에 ‘結束’ 은 ‘著裝’, ‘打扮’ 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옷을 입을 때 짧은 띠와 허리띠를 매는 단계에 이르면 이미 마지막 순서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結束’ 이라는 단어는 ‘終了’ 의 의미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어원에서 의미를 규명하지 않는다면 오류가 생기기 쉽다.

한편 아래 예문과 같이 ‘하던 일이나 말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끝맺다’ 는 의미는 현대한국어에서도 쓰이고 있어 ‘結束’ 은 부분이의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의견을 종합하여 결속을 지었다. (綜合意見, 做個結束)

나) 이 철도의 개통은 티베트에 외계와 연결하는 철도가 없는 역사를 결속지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한자어는 시대나 지방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경우가 많다. 이는 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 자체의 특성으로 일자다의(一字多義)의 두 글자가 합치게 되면 더 많은 의미가 생겨서 같은 어휘라도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랜 역사의 변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것도 의미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한자어는 차용어로서 보다 보수적이어서 마음대로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 한자어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한국한자어는 대부분이 차용된 그 당시의 의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결국 양국의 어휘는 같은 쓰임도 다른 쓰임도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본고는 한 중 동형완전이의어에 있는 한국 한자어의 의미가 스스로 의미전이된 것이 아니라, 중국어에서 차용된 후 줄곧 당시의 의미를 지금까지 간직해 왔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런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각 의미에 대응되는 출처를 찾아내는 어원적 고찰을 하기로 한다.

3. 同形完全異意의 漢字語

사용빈도 20 이상의 한 중 同形 完全 異意 한자어를 정리•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講義강의 66²

² 예문 제시에 사용된 약어와 표시는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표제어 왼쪽의 숫자는 ‘빈도수’ 를 나타내며 (예: ‘講義강의 66’ 에서의 66 임.), ‘한’ 은 ‘한국어 의미’, ‘어원’ 은 ‘한국어 의미의 출처’, ‘中’ 은 ‘중국어 의미’, ‘語源’ 은 ‘중국어 의미의 출처’ 를 가리킨다. 화살표(→)는 상대 언어에서

한 :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 上課

예 : 강의를 듣다. = 中 1

어원 『新校本隋書/志/卷十九』 : 逮梁武帝於長春殿講義, 別擬天體, 全同周髀之文, 蓋立新意, 以排渾天之論而已。³

『新校本舊唐書/列傳/卷一百八十九下』 : 陛下令先生與寡人講義, 何得言他。⁴

中 : 1. 闡釋說明書籍的義理。例 : 新校本南史/本紀/卷七 : 「自是晨夕講義, 多由此門。」⁵ = 韓

2. 古時臣子將講授給帝王研習的資料預先撰擬出來, 稱爲「講義」。現學校教師爲學生編輯的講授資料亦稱「講義」。⁶

講義 이 한자어는 사전에 실려 있는 뜻풀이에 의하면 한·중의 쓰임이 부분 이의어로 간주되는데 (中 1)은 현대 중국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中 2)만 따지면 완전 이의어로 분류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고문헌에서 한국어의 쓰임이 먼저 나타나고 사용빈도도 많음에 비해, (中 2)의 표현은 보다 늦게 나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쓰임이 중국어보다 原義를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입증이라 할 수 있다.

結束결속 5

한 : 1. 한 덩어리가 되게 묶음.

2.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단결함.

3. 여행을 떠나거나 싸움터에 나설 때의 몸단속을 함. 또는 그럴 때의 몸단속. = 中 3

4. 하던 일이나 말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끝맺음. = 中 1

예 : 의견을 종합하여 결속을 지었다. (綜合意見, 做個結束)

이 철도의 개통은 티베트에 외계와 연결하는 철도가 없는 역사를 결속지었다.

中 : 1. 總結、終了。例 : 事情已結束了。

2. 拘束。例 : 文選古詩十九首東城高且長 : 「蕩滌放情志, 何爲自結束?」⁷

3. 穿戴裝扮。例 : 西遊記二十一回 : 「老妖結束整齊, …帥群妖跳出本洞。」⁸

語源 『新校本舊五代史/唐書/卷四十八』 : 其輜重老弱皆在虎北口, 每日冥, 結束以備倉卒遁逃。

⁹= 韓 3, 中 3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제시하며 등호(=, =)는 상대 언어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의미항목번호를 제시한다.

³ 양무제를 잡아와서 장춘전에서 강의를 시키고 별도로 천체를 만들었는데 주비산경의 문장과 다름이 없다. 새로운 뜻을 세워서 그것으로서 혼천지론을 배척하기 위하는 것이 아닌가.

⁴ 선생으로 하여금 과인에게 강의해 주라 하는데, 어찌 다른 말씀을 듣겠는가?

⁵ 이 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강의 하니, 이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가 모였다.

⁶ 고대에는 신하가 제왕에게 수강하여 학습할 자료를 우선 예상모의내용을 편찬해서 나온 것을 ‘講義’ 「」라 칭한다. 현재는 학교교사가 학생을 위해 편집한 자료 또한 ‘講義’라 칭한다.

⁷ 세상사 근심을 씻어버리고 기분을 풀어야지, 왜 자기 자신을 구속하여 괴로워 하는가?

⁸ 요괴대장이 몸단속하고 의관을 정제한 후, … 다른 요괴무리들을 이끌고 동굴을 빠져 나왔다.

⁹ 그 군수품과 노인과 청년은 호북구에 있는데, 매일밤 단속하여 갑작스럽게 도망을 치는 것을 대비한다

『十三經注禮記注疏』：在橫者之上 每幅之末析爲三片 以結束爲便也。¹⁰ =한 1

『全宋詩/卷八六五/雨中遊小雲居』：鄉黨二三子，結束同一舟。¹¹ =한 2

『新校本清史稿/志/卷一百五十四』：至此界務告一結束(결속지음)。 =中 1, 한 4

위에서 고문헌을 살펴보면 한국한자어 ‘結束’의 여러 의미가 나타나는 순서는 (한 3)→(한 1)→(한 2)→(한 4)이다. 과연 현대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한 1,2)용법은 첫 출처인 (한 3)에서 의미전이가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원의(原義) (한 3)과 관계없이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結束을 차용해서 의미차이가 생기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본고는 후자의 관점을 지지한다.

高調 고조 27

한 : 1. 음 따위의 가락을 높임. 또는 그 높은 가락.

예 : 목이 쉰 그는 고조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高音

2.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짐. 또는 그런 상태.

예 : 공연의 분위기가 고조에 달하자, 관객 모두가 열광했다. =高潮

어원 『新校本漢書/列傳/卷六十四下』：楚辭云『奏伯牙之號鍾』·號鍾，琴名也·馬融笛賦曰『號鍾高調』·伯牙以善鼓琴，不聞說能擊鍾也。¹²

中 : 比喻理想甚高，雖動聽而不切實際或難以實行的論調。例：「他喜歡唱高調，不切實際，所以一事無成。」¹³

語源 『全宋詩/卷二五七』：至此和者纔數人，乃知高調難隨俗。¹⁴

‘高調’는 한국어에서는 ‘高音’과 ‘高潮’의 뜻임에 비해, 중국어에서는 ‘공론(空論)’의 뜻으로 쓰인다. 어원을 보면 ‘高調’는 원래 ‘거문고의 음이 높다’는 것을 뜻하였는데 현대중국어에서는 ‘듣기 좋은 주장이나 실천하기에 어려운 공론’이라는 의미로 전이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고문헌에서 ‘空論’이라는 의미보다 ‘高音’의 뜻으로 쓰이는 예가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의미가 중국어보다 원의(原義)를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입증이라 하겠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중국어 ‘高潮’에 해당되는 의미(한 2)도 있는데 고문헌에서는 보이지

¹⁰ 옆으로 된 것 위에 매폭의 끝마다 풀어서 세 편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묶어서 便(한 부분)을 만든다.

¹¹ 고향 사람 두 세 사람이 한배에 뭉쳤다.

¹² 초사에 이르기를 『진백아의 종호』종호(號鍾)는 거문고의 명칭이다. 馬融笛賦(마융이 지은 笛賦)에 이르기를 『종호의 고음조』백아는 거문고를 잘 타서 능히 종을 친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¹³ 그는 탁상공론을 부르짖기를 좋아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 한가지도 이루지 못했다.

¹⁴ 음을 맞출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뿐이니 고아한 곡조는 세속을 따르기가 어려움을 알겠다.

않는다. 이는 高潮와 발음이 같아서 오용이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工夫 공부 423

한 :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

어원 『顏氏家訓集解/卷第三(北齊)』 : 朱子所謂『一心兩眼, 痛下工夫』是也。¹⁵江南閭里間, 士大夫或不學問, 羞爲鄙朴…

中 : 1.空閒時間。

2.本領、用功, 努力的程度。亦作「功夫」。

語源 『鶴林玉露/乙編/卷之五(宋)』 : 朱文公云 : 「成湯聖敬日躋, 與盤銘數語, 猶有細密工夫, 至武王, 往往並不見其切己事。¹⁶」 → 기술, 재능

『鶴林玉露/丙編/卷之六(宋)』 : 魏鶴山答友人書云 : 「須從諸經字字看過, 思所以自得, 不可只從前賢言語上作工夫。¹⁷」 → 공부

『水滸全傳/第十五回』 : 保正今日在莊上請人吃酒, 沒工夫相見。¹⁸ → 틈

『水滸全傳/第三十六回』 : 踏破鐵鞋無覓處, 得來全不費工夫。¹⁹ → 노력

『水滸全傳/第八十回』 : 戰船打造役生靈, 枉費工夫用不成。²⁰ → 재능, 실력

사전에서 工夫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운다는 뜻으로 풀리는데 현재 한국어에서는 학문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문공부를 뜻하는 工夫는 중국고문헌에서 많이 보일 수 있고 중국어의 다른 쓰임보다 일찍 北齊부터 나타났다는 것도 어원에서 알 수 있다. 위 語源에서 보듯이 송나라 때부터 학문 외에 기술, 재능 공부라는 쓰임도 나타났기 때문에 같은 한 책에서도 용법이 두 가지나 보인다. 더 후대에 와서 水滸傳이라는 책에서 원나라 때부터 현대중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인 ‘틈, 노력’ 이 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연대를 따지고 보면 한국의 工夫는 맨 처음의 原義를 보존하여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狂氣 광기 21

한 : 1.미친 듯한 기미.

예 : 그녀의 두 눈에는 광기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빛이 이상한 물기와 함께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문열, 영웅 시대>>

2.미친 듯이 날뛰는 기질을 속되게 이르는 말. =發狂

¹⁵ 『마음과 두눈을 하나로 일치시켜, 학문에 힘써라』 바로 이것이다.

¹⁶ 탕임금의 성스럽고 공경하는 덕이 날로 발전하는 것과 반명[어떤 기물에 새겨넣은 글의 몇 마디 말들은 오히려 세밀하게 공부할 것이 있으나, 무왕에 이르러서는 자주 내 자신에게 절실한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¹⁷ 반드시 여러 경전에 있는 글자마자 살펴보아야 생각을 얻을 수 있고, 전 현인들의 말에만 공부를 해서는 안된다.

¹⁸ 가게에서 술한턱 내기로 약속 했는데 만날 틈이 없다.

¹⁹ 쇠 신발이 다 닳도록 찾아다녀도 찾을수 없더니 별로 힘들이지 않고 찾다.

²⁰ 군함을 만드는 백성의 노역은 재능을 썩여 쓸모없다

예: 광기를 부리다.

어원 『醒世姻緣一百回』: 你休只管狂氣, 我待打殺那婆娘孩子...²¹

中: 狂放高傲的氣概。

語源 『朱子語類』: 漢文帝謂之善人, 武帝卻有狂氣象。²²

한국어 ‘狂氣 1’의 의미는 고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狂氣 2’는 소설 『醒世姻緣』에서 보인다. 이는 현대 중국어의 ‘發狂’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현대 중국어의 ‘狂氣’는 ‘거만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차이는 ‘狂’ 자체가 ‘미치다, 오만하다, 열광적이다’ 등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老婆 노파 26

한: 늙은 여자. ≡ 노고(老姑), 노구(老嫗), 노온(老媪), 마고할미. = 老婆婆, 老婆子

예: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건넌다.

中: 1. 年老的女僕。紅樓夢/第三回: 「丫頭老婆們不好了, 也只管告訴我。」

2. 女人。醒世姻緣/十九: 「小鴉兒呢了一聲說: 『偏你這些老婆們, 有這們些胡姑姑、假姨姨的。』」

3. 妻子

語源 『清稗類鈔/詼諧類/老老婆』: 老婆, 猶言老婦。謂老婦之主持家事者。今俗稱妻曰老婆, 則亦以其持家故也。…妻曰老婆, 妾自可稱小老婆矣。²³

‘老婆’는 원래 ‘늙은 여인’의 뜻으로 쓰였다가 오늘날에 ‘妻’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음을 어원에서 볼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아내를 의미하는 ‘老婆’는 옛 중국어에서 ‘老婆=老婦=집안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변화 과정을 거쳐서 의미가 전이되었음이 어원에서도 나타난다. 이 또한 한국어의 의미가 原義를 더 잘 보존하고 있다.

斷乎 단호 40

한: 결심한 것을 처리함에 과단성이 있다. = 果斷, 果決

예: 단호하게 잘라 말하다./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中: 絕對。

語源 『新校本晉書/列傳/卷七十六』: 王彬艤船而厚其所薄, 王舒沈江而薄其所厚, 較之優劣, 斷乎可知。²⁴

²¹ 네 마음대로 광기 부리지 마라. 내가 이따 그 여편네 자식들을 때려죽일테니...

²² 한무제는 선인이라 불리우고, 무제는 오히려 광기가 있다.

²³ 노파는 노부(老婦)를 두고 하는 말이다. 노부는 가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날 아내를 속칭하기를 노파(老婆)라 한다. 또한 집안일을 돌보는 데 연유가 있다. 처는 노파를 말하며, 첩은 작은 마누라 라칭할수 있다

²⁴ 왕빈은 배를 대고 그 얇은 것을 두껍게 하였고, 왕서는 강에 빠지고서 그 두꺼운 것을

斷乎는 한국어에 있어서 중국어의 ‘果斷’ 이나 ‘堅決’ 에 해당되는데 비해, 옛 중국어에서는 ‘절대로, 반드시’ 의 뜻을 나타냈다. ‘乎’ 는 종결어미로서 현대중국어의 의문사 ‘嗎, 呢’ 의 의미와 같거나, ‘추측, 감탄 혹은 의미가 없는 조사’ 등으로 쓰이고 있어 ‘절대로, 반드시’ 의 의미는 ‘斷’ 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어원에서 한국어의 의미는 찾지 못했다. 차용될 때 글자의 일부분만 가져와 사용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다음과 같이 ‘果斷乎’ 가 ‘斷乎’ 로 잘못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文獻通考』：帝曰世宗非能果斷乎 安石曰是也.²⁵

漠然막연 41

한 : 1.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다. =茫然

예 :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하다.

2.뚜렷하지 못하고 어렵풋하다. =渺茫、模糊

예 : 막연한 기대/막연한 생각.

어원 『淮南子/第十卷』：聖人之爲治，漠然不見賢焉，終而後知其可大也。²⁶ = 한 1

『續資治通鑑長編/哲宗 凡一百五十七卷』：或漠然兩可，或深藏其意，爲不可測。²⁷ = 한 2

中 : 1.寂靜無聲。莊子 天道：「老子漠然不應。(노자는 못 들은 것 같이 대답을 안 했다.)」

2.不關心或不相關。初刻拍案驚奇/卷十六：「眾朋友多來弔唁，就中便有說著會試一事的，燦若漠然不顧。」²⁸

중국어의 ‘漠然’ 은 '조용하다, 무관심하다'는 뜻이고 한국어의 의미는 중국어의 ‘茫然, 渺茫、模糊不清'에 해당된다. 이는 어원이 다름으로 인해 원래부터 본의를 다르게 사용하는 예라 할 수 있다.

放置방치 26

한 : 내버려 둬. =기치(棄置).

예 : 쓰레기의 방치로 온 동네가 지저분해졌다.

어원 『十三經注/論語注疏』：虞仲夷逸隱居放言身中清廢中權者放置也。

『閱微草堂筆記/卷一』：釋一猛虎之命。放置深山。²⁹

中 : 安放。『齊民要術校釋/卷八』：說明“奠”也是“置”。置就是放置，碗放在桌上是置，菜放進碗裏面也是置。³⁰例：「化妝品最好放置在陰涼的地方。」 = 놓다, 두다

얹게 하였으니 비교해보면 그 우열을 반드시 알수있다.

²⁵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세종은 과단 할 수 있는건 아니다. 왕안석이 말하길 그러하옵니다.

²⁶ 성인께서 나라를 다스림에 처음에는 조용히 어떤 최선의 상책을 쓰는지 보이지 않으나 나중에는 그가 현명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²⁷ 막연히 둘이 가능하더니 그 뜻을 깊게 숨겨서 예측 할수 없다.

²⁸ 친구들이 많이 와서 조문을 했. 그 중에서 과거시험을 본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燦若은 무관심하게 주목하지 않았다.

²⁹ 맹호의 목숨을 놓아준다. 깊은 산에 방치한다.

어원에서 한국어의 의미와 중국어의 의미가 두루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의미는 역시 가장 오래전의 의미를 보존해 왔다는 사실이 어원 『十三經注』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현대중국어의 ‘放置’는 ‘놓다, 두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어원부터 다르게 쓰인 어휘에 속한다.

放學방학 144

한: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 추위가 심한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 =放假

예: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다.

중: 學生下課回家。例: 小英放學後會幫媽媽做家事。

語源 『醒世姻緣/第六回』: 先生也該放學了, 如何年節到了, 還在京中做甚?(선생은 방학해야 할 때다 설이 다와 가는데 아직도 경성에서 뭐하나?) =한

『醒世姻緣/第三十三回』: 將又天晚下來, 只得放學; 排了班, 先生要出對子, 對完了纔許作一個揖回去。(장차 또 날이 저물면 어쩔수 없이 하교 해야지.) =中

‘放學’은 한 책에서 2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어는 ‘긴 기간 동안 수업을 쉬다’는 뜻을 차용하였고 현대 중국어는 ‘수업이 끝나다(=하학下學)’는 뜻만 취했다. 이로 인해 의미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즉, 양국의 ‘放學’은 원래부터 본의를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俳優배우 99

한: 연극이나 영화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로 분장하여 연기를 하는 사람.

예: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다.

중: 1. 滑稽雜戲。漢書/卷六十八: 「俳優, 諧戲也。(배우는 익살을 떨고 개사부리는 것이다.)」

2. 古代演滑稽雜戲的藝人。史記 卷一一二: 「…俳優侏儒之笑不乏於前, 而天下無宿憂。(광대가 지닌 웃음이 끊기기 전까지 천하에 여전히 묻혀 있는 근심은 없다)」

‘俳優’라는 말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오히려 대만말인 민남어(閩南語)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그런지 대만사람들이 ‘俳優’는 일제시대에 일본어에서 차용해 온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원을 보면 중국의 고문헌인 『史記』에서 이미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한자가 중국어에서 차용해 쓰인 후 식민기간 다시 대만말과 한국어에 영향을 끼친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³⁰ 置之 바로 방치이다. 그릇을 탁자에 놓는 것은 置이고 음식을 그릇 안에 넣는 것도 置라고 한다.

현대중국어에서는 이미 이 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한자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국어에서 ‘俳優’ 대신 ‘演員’ 이 더 많이 쓰인다. 이에 비해, 계속 쓰이고 있는 한국어俳優는 語源에서 보듯이 코메디를 주로 하는 연예인을 가리킨다는 본의를 의미확대하게 되어 모든 영화나 연극에 등장하는 사람을 통칭하게 된 것이다.

點心점심 96

한 : 1. 낮에 끼니로 먹는 음식.

2. 『불』 선원에서, 배고플 때에 조금 먹는 음식을 이르는 말. 마음을 점검한다는 뜻이다. =中

3. 『민』 무당이 삼신에게 떡과 과일 따위의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갓난아이의 짓이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일.

中 : 糕餅之類的食品, 餓的時候可以暫時充飢, 今泛指小吃爲點心, 以別於正餐而言。

語源 『千金翼方/卷十四(唐)』 : 食後將息法。平旦點心飯訖。即自以熱手摩腹。³¹

『元陶宗儀/南村輟耕錄/卷十七/點心』 : 早飯前及飯後, 午前, 午後, 哺前小食爲點心。³²

『能改齋漫錄/卷二/事始二/點心(明)』世俗例以早晨小食爲點心。自唐時已有此語。³³

‘午餐’의 뜻으로 쓰이는 ‘點心’은 어원에서 찾지 못했다. 고문헌들에 있는 ‘點心’은 모두 ‘간식’을 뜻한다. (한 2)에서 보듯이 ‘點心’은 불교용어에서도 나타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박영섭(1995:72)에 의하면 원래 불교용어인 ‘點心’은 ‘腹心に點加한다’는 뜻으로 ‘點’은 ‘음식으로 공복에 점을 친다’는 의미이다. 佛家에서는 새벽이나 일정한 식사와 식사 사이에 시장함을 면하기 위해 음식을 조금 먹는데 이것을 ‘點心’이라 부른다. 語源에서 보듯이 당나라때부터 이런 용법은 쓰이고 있었고 현대 중국어 點心과 같은 뜻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어가 고의를 보유해 왔음에 반해, 한국어는 의미전이를 일으켰다는 예다. 하지만 현대 한국어의 ‘점심’은 어떻게 의미변화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고증이 더 필요하다.

頂上정상 114

한 : 1. 산 따위의 맨 꼭대기. 산꼭대기. =山頂上

예 : 정상에서 내려오다.

2. 그 이상 더없는 최고의 상태..

예 : 오랫동안 정상을 지키다. / 한국은 이번 세계 축구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3. 한 나라의 최고 수뇌.

³¹ 식후 휴식법. 새벽녘 간단한 요기를 마친다. 스스로 더운 손으로 배를 문지른다.

³² 조식전 및 조식후, 오전, 오후, 먹이기전 소식(게 먹는 것)이 點心이라고 한다.

³³ 세속의 예로 아침에 소식 하는 것이 점심이다. 당나라 시대부터 이 말이 있었다.

예 : 정상들이 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어원 『新校本史記三家注/新校本史記/列傳/卷六十七』: 注水經云『其山崖壁五, 崖半有一石室, 去地五十丈, 頂上平地十許頃。³⁴

中 : 頭上。例 : 「你頂上的頭髮怎愈來愈少呢?」

語源 『新校本後漢書/列傳/卷四十上』: 郭璞注山海經曰: 「犀似牛而頭, 黑色, 有三角, 一在頂上, 一在額上, 一在鼻上。³⁵

頂上의 본의는 ‘산꼭대기’ 와 ‘머리 위’ 였는데 한국어에서는 전자를 차용했다가 다시 ‘절정’ 과 ‘수뇌’ 의 의미로 확대된 데 비해, 현대 중국어에서는 후자의 의미만 남아 있다. 이는 처음부터 본의를 다르게 사용한 예라 할 수 있다.

調達조달 28

한 : 자금이나 물자 따위를 대어 줌. = 籌措、調度

예 : 물품 조달이 어려워지다.

어원 『明實錄/憲宗/卷十三』: 吳禎一人兼任兩處地方, 顧此失彼, 初議調達軍, 亦以禎偏執而止。(처음에 군대를 조달하려는데 吳禎의 고집불통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

『清實錄』: 臣保泰調達木兵五百名。(신 보태는 목병 오백명을 조달한다.)

中 : 1. 詩文暢達, 樂韻和諧。例 : 晉書/卷八十一/桓宣傳 : 「帝善其調達, 乃敕御妓奏笛。」³⁶

2. 人名。譯自胡語。即提婆達多。例 : 調達(提婆達多)亦如是, 中前著衣持鉢, 迦留羅提舍隨後...(調達: 사람의 이름.)

語源 『新校本後漢書/列傳/卷四十下』: 論語子語魯太師樂曰: 「樂其可知也·始作翕如也, 縱之純如也, 皦如也, 繹如也, 以成。」鄭玄注云: 「繹, 調達之貌。」³⁷

調達은 교육부 전자사전에서 ‘음악·리듬이 어울리다’ 와 ‘시문이 유창하다’ 는 의미 및 불교에서의 사람 이름, 즉 ‘提婆達多’ 두 가지만 적혀 있는데 고문헌사전에서 한국어의 쓰임도 보인다. 단, 중국어의 調達은 한국어의 調達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나 古意를 사용해 왔음에 비해, 한국어의 調達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쓰이기 시작했다. 이는 본의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를 초래하는 것이다.

³⁴ 그산의 절벽이 5 개인데 절벽중턱에 석실이 하나있고, 땅까지 길이는 50 장이며 정상 의 평지는 약 20 만평이다.

³⁵ 무 소는 소를 닮았고, 머리는 검은색이고, 뿔이 세개나 있다. 하나는 머리위에 있고, 하나는 이마 위에, 하나는 코위에 있다

³⁶ 황제가 시문, 음악 등 재능이 훌륭하니 악기(樂妓)에게 피리를 불도록 하였다

³⁷ <논어>에서 공자가魯나라의太師樂에게 “음악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처음 연주가 시작될 때에는 여러 악기 소리가 일제히 울리고, 차차 높아갈 때에는 고음과 저음 이 화합하고, 오음이 각각 분명하다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으면서 끝을 마친다.” 하였다. 정현의 주에 “繹은 調達하는 모양이다.” 하였다.(翁純: 일제히 울리고 화합함. 皦繹: 音節이 分明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

操心조심 70

한 :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씬. ≡ 주의(注意)=小心

예 : 일이 심상치 않을 것 같으니 모두 조심들 하게.

中 : 1.勞費心力精神。例：孟子/盡心上：「獨孤臣孽子，其操心也危，其慮患也深，故達。」³⁸

2.執持的心志。例：史記/卷九十八/傅寬傳：「蒯成侯周操心堅正，身不見疑。」³⁹

한국어의 ‘操心’은 중국어의 ‘小心’에 해당되는데 어원을 찾지 못했다. 중국어의 ‘操心’은 원래 ‘견지하다’와 ‘마음 쓰다, 노심하다’ 등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중국어에서는 거의 다 후자의 의미로만 쓰이고 있다. 양국간의 의미차이는 ‘마음 쓰다’는 의미에서 분화되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어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다’는 의미로, 중국어에서는 ‘걱정이 돼서 마음(신경) 쓰다’는 의미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注文주문 43

한 : 1.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에게 그 상품의 생산이나 수송,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청구함. 또는 그 요구나 청구.

예 : 손님의 주문에 따라 점원은 여러 색깔의 손수건을 대여섯 장 진열대 위에 올려놨다.

2.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부탁함. 또는 그 요구나 부탁.

예 : 주인 부부는 그때까지도 내게 아무런 주문도 해 오지 않았다. <이동하, 장난감 도시>

中 : 注解的文字。例：閱讀古代典籍，必須廣泛參照前輩學者所作的注文，如此才能充分了解文義！⁴⁰

한국어의 ‘注文’은 일본 한자어에서 차용해 온 것으로 중국어의 ‘注文’과 다르게 쓰이고 있다. ‘注文’은 현대중국어에서는 ‘각주’의 뜻으로 쓰이는데 대만방언인 민남어(閩南語)에서는 한국어와 같은 ‘주문’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 주목된다.

【注文】ㄱ 3→2 万ㄴ 5[名詞](台華雙語辭典)

1.註解(각주)。

2.定做/預定。(주문)

³⁸ 임금의 눈에 들지 않는 신하와 서자는 그마음을 견지하고 두려워 하며, 환란을 걱정하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한다.

³⁹ 괴성후 주는 품행이 올바르고 의지와 신념이 확고하며 행실도 남에게 의심을 사지 않는다.

⁴⁰ 고대의 전적을 읽을 때 반드시 선배학자가 주를 단 주문을 넓게 참조하라. 이래야만 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注文’도 위에서 살펴본 ‘俳優’처럼 중국한자어를 차용한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閩南語에서 쓰이게 된 것이라고 짐작되었는데 고문헌에서 그 어원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일본에서 중국 고문헌에서 나온 한자어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단어 의미를 부여하고 만든 한자어인데 식민지시대에 다시 대만에 들어와 그 당시 표준어를 모르는 대만 사람들에 의해 閩南語 발음으로 읽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出產출산 109

한: 1. 아이를 낳음. '해산(解産)'으로 순화.

예: 너희 할아버님 일각이 여삼추로 남아 출산 손자 보기를 학수고대하셨는데. <최명희, 혼불>

어원 『普濟方婦人/卷三百三十六/妊娠諸疾門一(明)』: 胎前避忌出產後救急方初受胎後。凡妨胎藥物。并不宜服...

『醫部全錄/婦人產後門/卷三百九十(清)』: 出產後忽冒悶汗出者, 因陰血虧損, 陽氣鬱暴故也。⁴¹

2. 만들어 내거나 생겨남. 또는 그 물건. = 中

中: 1. 各地方天然或人工所產的物品。例: 唐/唐彥謙/索蝦詩: 「出產在四時, 極美宜於秋。」

2. 生産。如: 「古巴以出產咖啡著名於世。(쿠바는 커피 생산으로 세계에서 유명하다.)」

‘出產’은 한국어에서는 ‘아이를 낳다’는 뜻으로, 중국어에서는 ‘생산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고문헌에서 한국어의 용법(한 1)은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로 의학과 관련된 문헌 몇 권에서만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 국어대사전에서 ‘出產’은 (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생산하다’는 뜻풀이도 나타나지만 현대한국어에서는 거의 다 (한 1)의 의미로만 쓰이고 있다. 이점에서 보면 部分異意語로 간주되어 온 ‘生産’은 完全異意語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親庭친정 45

한: 결혼한 여자의 본집.

예: 시집은 후 처음으로 친정 나들이를 갔다.

中: 父親。初刻拍案驚奇/卷二十三: 「一旦聲跡彰露, 親庭罪責, 將妾拘繫于內, 郎趕逐于外, ... 妾罪大矣。」⁴²

語源 『朱子語類/卷第二十七』: 人子去親庭既遠, 溫清定省之禮, 自此間闕, 所以不遠遊。⁴³

⁴¹ 출산후 갑자기 식은 땀이 흥건히 나오는 것은 음혈이 모자르고 양기가 엉키어 터진 원인이다.

⁴² 하루 아침에 소식과 행적이 드러나자. 부모님이 죄책(罪責)하여 저를 안에 가두고 낭군은 밖으로 내쫓았으니...저의 죄가 큼니다

⁴³ 자식으로서 부모님 곁에서 이미 멀어져 있으면 밤에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 안부를 묻는 예가 이로부터 소홀해 지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는 것이다.

『朱子語類』에서 親庭은 원래 父母의 뜻이었는데 현대 중국어에서 의미축소되어 부친의 뜻으로만 쓰이고 있음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의미확대되어 ‘결혼한 여자의 본집’ 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該當 해당 68

한 : 1.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 =該~

예 : 해당 부서/해당 단체.

2.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 '들어맞음'으로 순화. =相當~

예 : 법률이 정한 조건에 해당 사항 없음.

어원 『清朝續文獻通考』: 按原提本銀數目分給各該當雜商。⁴⁴ →한 1

『明經世文編』: 除役占優免外、該當差者共有若干丁。⁴⁵ →한 2

中 : 應該。例 : 東窗事發, 你我該當如何? (죄악이 폭로되면, 너와 나는 어떻게 해당 되나?)

語源 『西遊記』: 你死該當, 只難爲沙僧、八戒與那小龍...⁴⁶

중국 고문헌에서 한국어의 의미가 더 많이 보임에 비해, 중국어의 의미는 현대에 이르러서야 보이게 된다. 이는 한국어가 古義를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行事項사 201

한 : 1.어떤 일을 시행함. 또는 그 일. ≒活動

예 : 대회 주최 측은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다.

2.성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辦事

예 : 분녀는 하는 수 없이 방 안의 행사를 일일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숨을 죽였다. <<이효석, 분녀>>

어원 『禮記/王制』: 喪三年不祭·唯祭天地社稷·爲越紼而行事。⁴⁷ →한 1

『三遂平妖傳/第六回』: 回到房中煖起一壺好酒, 自家吃得三分醉意, 且坐在醉翁上打個盹, 養些精神到下半夜去行事。⁴⁸ →한 2

中 : 1.行爲舉止。例 : 他的行事風格很值得學習。(그의 행동 스타일은 배울 가치가 있다.)

2.辦事、做事。例 : 我只是奉命行事罷了。(나는 단지 명을 받들어 일을 했을 따름이다.)

語源 『春秋穀梁傳/僖公/二十八年』: 以爲晉文公之行事·爲已愼矣。⁴⁹ →中 1

『禮記/曲禮上』: 故曰·疑而筮之·則弗非也·日而行事·則必踐之。⁵⁰ →中 2

⁴⁴ 본전의 액수대로 각 해당 잡상에게 나누어 주었다.

⁴⁵ 노역 중 우수함을 면제 외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약간의 장정만 있다

⁴⁶ 네가 죽어야 당연한데 사오정, 저팔계와 그 소룡을 못살게 굴다니!

⁴⁷ 부모의 상을 당하면 3 년동안 조상의 사당에 가서 제사를 치르지 않지만, 단 천지와 사직신(토지와 곡식의신)만은 제사를 드리며, 이는 상을 치르는 기간의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⁴⁸ 방으로 돌아와 술 한 주전자를 데워서 취기가 좀 있을 때까지 마시고, 앉아서 졸으며, 곧 있을 밤일 행사(방사:성교)를 치르기 위해 정신을 들었다.

⁴⁹ 진문공의 행위가 이미 상반되어 뒤섞였다고 보고 있다.

⁵⁰ 수상하여 점을 치니, 점괘의 결과는 다시 기존의 국면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날 일을 치르기로 결정하여, 반드시 그날 실행하여야 한다.

중국 고문헌에서 ‘行事’는 한국어의 의미(한 1)과 ‘제사’의 뜻으로 쓰인 예가 많이 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어에서 ‘사람의 행위나 품행’과 ‘일을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行事’는 고문헌에서 많이 보이지 않았다. 현대중국어에서는 예문처럼 ‘行事風格(행동 스타일)’, ‘奉命行事(명령대로 일한다)’와 같은 관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한편,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 2)의 용법은 현대한국어에서 많이 보이진 않지만 사전에 실려 있고 고문헌에서도 출처를 찾아냈다. 이는 古義를 간직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보편화되지 못해 결국 잘 쓰이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向上향상 65

한 :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짐 = 進步、提升

예 :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힘쓰다.

어원 『新校本宋史/列傳/卷四百二十五』：齊桓公當王霸升降之會，而不能爲向上事業，獨能開世變厲階。⁵¹

中 : 1. 往上、朝上。例：「大家都向上看那月蝕的景象。」(모두 위를 향해 월식의 형상을 본다)

2. 上進、進取。例：「人間向上的心是很可貴的」(인간의 진취심이 매우 귀한 것이다.)

語源 『漢書/列傳/卷九十九上』：喁喁，衆口向上也，音顛。⁵²

『新校本元史/列傳/卷一百八十九』：於春秋以明書法爲主，其大要則在考覈三傳，以求向上之功。⁵³ → 中 2

중국 고문헌에서 ‘向上’의 한국어 의미로 쓰인 예는 하나밖에 찾지 못했고 중국어의 ‘위로 향하다’는 의미는 보편적이다. 언뜻 보면 한국어의 向上은 (中 2)와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중국어는 ‘열심히 하다(努力向上)’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한국어의 의미는 중국어 ‘提升, 提高’에 해당되는 것이다.

形便형편 103

한 : 1. 일이 되어 가는 상태나 경로 또는 결과.

예 : 그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잘 안다.

2. 살림살이의 형세.

예 : 장사가 잘돼서 형편이 작년보다 좋아졌다.

3. 이익을 차리는 생각.

⁵¹ 제나라 환공은 때마침 왕업을 제패하고 승강의 기회에 사업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厲階(재앙을 부르다)를 변화시켜 세상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⁵² 웅웅(喁喁)은 모든 사람의 입이 위로 향하는 것이다. 발음은 웅(顛)이다.

⁵³ 춘추에는 서법을 밝히는 것을 위주로 했다. 그 큰 요점은 곧 삼전을 고찰해서 향상된 공적을 구하는 데 있다.

4. 땅이 생긴 형상.

예 :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 밭이라고는 하지만 생김새가 꼭 우리나라 지도 같은 형편이었다.

어원 『新校本晉書/載記/卷一百十八』: 今以趙琨之, 使君之威, 準之先朝, 實未見成功·使君具悉形便, 何不表聞?⁵⁴→한 1

『新校本周書/列傳/卷二十二』: 楊寬大異人, 何至不惜形便如此。⁵⁵

中 : 形容地理形勢優良便利。

語源 『戰國策/秦策一』: 沃野千里, 蓄積饒多, 地勢形便。⁵⁶

形便은 중국 고문헌에서 거의 다 ‘지세(地勢)가 편리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현대중국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에 비해, 한국어의 의미(한 1)은 고문헌에서 2 개밖에 찾지 못했다. 한편, 한국어에 있는 다른 의미들은 어원에서 보이지 않아 原義에서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서 의미확대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이상에서 국립국어원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 빈도가 20 이상인 한자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26 개의 의미와 어원 등을 살펴 보았다. 그 중 한국어의 쓰임에 대한 어원을 찾지 못한 어휘는 半指와 注文 2 개이다. 그러나 半指는 본의와 관련성이 다소 있어 의미전이를 거친 흔적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注文’만 빼면 모두 중국 고문헌에서 그들의 최초 어원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중 동형 완전 이의어들의 차이는 거의 다 어원이 다르거나 처음부터 본의를 다르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결국 중국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미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한자어는 차용 당시의 의미를 줄곧 사용해 왔다는 데 대조가 된다.

4. 맺음말

한·중 同形 完全 異意語는 극히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완전 이의어가 생기게 된 원인은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즉 어원이 같은 것이 의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한 쪽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동시에 본의가 상실된 경우와 어원이 다르거나 원래부터 본의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다. 본고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한중 동형완전이의어에 있는 한국 한자어의 각 의미에 대응되는 출처를 가능한 한 찾아내고 어원적 고찰을 하였다.

⁵⁴ 왕으로 하여금 형편을 모두 갖추게 하는 일을 어찌 들을 수 없단 말인가?

⁵⁵ 양관은 매우 이색적인 사람 인데 어찌 형편이 이에 이르도록 그냥 두십니까?

⁵⁶ 비옥한 전답이 천리요, 모아둔 물자도 지극히 풍부하며, 지리 환경 또한 공격과 수비에 편리하다.

본고는 빈도수가 20 이상인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과 대응되는 중국어 26 개의 의미와 어원 등을 살펴 보았다. 그 중 한국어의 쓰임에 대한 어원을 찾지 못한 어휘는 半指와 注文 2 개가 있으나 半指는 본의와 관련성이 다소 있어 의미전이를 거친 흔적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注文’ 만 빼면 모두 중국 고문헌에서 그들의 최초 어원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어원에서 보면 한국 한자어는 스스로 의미전이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중국어에서 차용된 당시의 의미를 간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사회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문화의 변화 등의 이유로 의미가 변화된 것도 많은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심해 한국어는 본의를 더 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고에서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동형완전어의 한자어의 이질화에 대한 원인을 주로 어원에서 찾았지만 일부 어원을 찾지 못하였거나 의미 변천의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姜信沆(1988), 「漢字語使用의 現實과 使用問題」, 『國語生活』 14, 國語研究所
- 고 뇌(2004), 『한·중 실용 한자어의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郭 爽(200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 기술과 지도 방안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郭秋雯(2006), 『韓·中 兩國 달리 쓰이는 漢字成語』, 타이페이: 宜新文化出版社,
- 김광해(1989), 『고유어와 한자어 대응현상』, 서울: 탐출판사
- 김홍진(2006), 현대 한·중 한자어의 동형이의어·이형동의어 비교 연구-HSK 8822 甲·乙급 어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慧順(2005), 『中·韓·日 漢字語 比較研究』, 嶺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閔英蘭(2002), 「韓·中 漢字語의 意味 變化 類型」, 『國際言語文學』 6, 國際言語文學會
- 文蓮熙(2006), 한·중 한자어 의미 대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朴英燮(1997), 「韓國 漢字語에 대한 小考」, 『국어학』 29, 국어학회
- 박지영(2005), 「우리 국어 중의 漢字語와 中國語의 語彙 對照 研究 :中國語 語彙 教學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18, 中國語文學會
- 范琦慧(2002), 『韓中 同形 漢字 語彙比較에 대한 考察』,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成元慶(1977), 「韓中 兩國에서 現用하는 漢字語彙 比較攷」, 『省谷論叢』 8, 서울: 省谷學術財團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서울: 집문당
- _____ (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1
- 심재기 외(1998), 『의미론 서설』, 서울: 집문당
- 王克全(1994), 『韓·中 漢字語에 關한 比較研究: 現代國語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王 力(1980),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 _____ (1984), 「漢語詞彙史」, 『王力文集』 11,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 李得春(1994),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대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및 의미적 차이」, 『말』 19, 연세대

- 李長鎬(1996),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와 우리말 어휘 비교」, 『논문집』 28, 삼육대학교
- 李海慈(2001), 『韓國 漢字語와 中國語의 對照 研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林淑珠(1997), 『韓·中에 있어서 同形 漢字語의 對照·比較 研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程崇義(1987), 『韓·中 漢字語의 變遷에 關한 比較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鄭恩惠(1998), 『韓·中 漢字語의 異質化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원
- 蔡玉子(2004), 「韓國한자어와 中國現代漢語語彙의 비교 연구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의 어휘 목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4, 二重言語學會
- 黃慈仁(1993), 「韓中日 同形の 漢字語 意味對照」, 『語學』 20, 全北大學校 語學研究所;
- 許 璧(1991), 「朝鮮語中的漢字詞：論漢語和日本語對朝鮮語的影響」, 『漢語學習』 62
- 台華雙語辭典(1991), 敦理出版社: 타이베이